



보도시점 2026. 5. 13.(수) 17:00 배포 2026. 5. 13.(수) 15:00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개최, 학계·산업계 전문가 참여
- 민간재원을 동원한 글로벌 사우스 개발과 우리기업 진출 지원방안 논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발금융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정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형 개발금융” 관련하여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2차관 주재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개발금융이란 시장 차입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 방식이다.

< 개발금융 자문위원회 1차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6.5.13(수) 15:00~16: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재경부) 허장 2차관, 개발금융국장 등
(전문가) 정혁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최예지 소장(디아이랩), 권경덕 센터장(한국개발전략연구소) 외 6명

정부는 최근 개발금융 추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선진국들도 예산 중심의 ODA 방식을 벗어나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개발 금융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금융은 통상 금융 지원 기간이 길고, 위험에 대한 수용도도 높고, 지원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개발금융 도입을 통해 개도국 초대형 인프라사업에 대한 수주 경쟁력과 우리 혁신 기업의 개도국 진출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문위원회 참석자들은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개발금융 기능을 조속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용빈 소장(개발마케팅연구소)은 주요 선진국 개발금융기관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기관별 지원분야, 주요 전략 및 지원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허 차관은 “한국형 개발금융이 효과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의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재경부는 이번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범부처 “개발금융 추진체계 수립 T/F(재경부 2차관 주재)”도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1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hkim1229@korea.kr
			사무관	이상구 sk1eeonly@korea.kr